미움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나의 담대함을 가로막는다. 나의 사랑 또한 담대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괜한 고백을 남발하기도 한다. 그건 어쩌면 나의 이기적인 선택인지도 모르겠다. 사랑과 우정.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의 이기적이고 이기적으로만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나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상처주기라도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이 이해받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어쩌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뿐이겠지. 하지만 사랑은 나만의 열린 공간이 될 수 없다. 그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서 그 안에서 내가 내 안을 자유롭게 채우고 나를 위한 공간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아닌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곤 하잖아.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 '왜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단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적이 있긴 한지 모르겠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건 정말 사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단다. 사랑이라는 건 뭔가 특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닐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사랑은 그런 거 같아. 그게 진짜 사랑인 것처럼.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 내가 뭘 더 잘해주거나 더 사랑해주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주는 것만으로 그걸 내가 잘해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이 사람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준다는 것도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낀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의미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에.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사랑할 수 있기를. 그게 내가 할 수 있을 수 있던 전부라고 생각한다. 나는 사랑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사랑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지. 사랑을 할 땐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닿을 수 있는 온전한 존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담대한 사람이 더 사랑 받는다는 사실을 알길 바란다. 그러니 사랑 받을 용기를 가지는 건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그 용기가 필요하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내 곁에서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냥 그런 것뿐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낸다. 그리고 오늘은 내 삶의 마지막 날이다. - (2022. 07. 10)

, ..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걸 알면서도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사랑을 시작할 수 없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랑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는 것도 사실이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사랑을 한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랑은 더욱 깊어진다.

그렇게 몇 달 후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닐까? 이 글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글이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다. 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보길 바란다.

용기를 가진 사람은 더 미움 받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게 용기를 가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겁 먹지 말고 담대해져라.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해줘야 한다. 그렇게 나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온전히 담아줄 수 있는지, 내 마음의 온기를 어떻게 전해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용기를 낼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담긴 사랑을 담아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연애를 하며 관계를 맺어야 한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쉽지 않다. 그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좋아해주는 마음도 필요하다. 그렇게 서로가 좋아야 사랑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엔 나의 사랑에도, 상대방 사랑도 중요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아끼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다. 사랑받기 위해 내가 노력할 때 받는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순간이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은 나를 용서해 주고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아꼈으면 해요.

이제는 용기가 생겼으리라 믿는다. 용기와 사랑 모두 인생에 필요하다. 용기를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 용기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나는 비로소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도움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한 일이다. 그 고마운 마음이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글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